

**대구항쟁에습제의
탄생준비**

2020-2024

김미련

10월 항쟁 개요

대구의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의 전개과정

- 미군정기에 발생한 **한국현대사 최초의 민중항쟁**
(1946.9.30.-10.2.)
-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최강 미군에 저항한 항쟁**
-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한 **강렬한 대중운동**
근대 이후 한국 3대 민중항쟁
- 한국사회가 일제강점기 지배체제를 벗어나는
시기에 일어난 **강렬한 전환점**
- 극단적인 이념분열과 **계급분화, 원시적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필요성등을 일순간에 드러나게 만든
역사적 사건

일자	내용
1946.2~9	▸ 대구전매국 파업, 남선전기 투쟁
9.24	▸ 대구역 철도파업
9.26	▸ 대구우편국 / 전화국 파업
9.27	▸ 남조선총파업대구시투쟁위원회 간판 게첨
9.30	▸ 대구 30개업체 5,000여명 파업 돌입
10.1	▸ 대구노평 ⇔ 대구역 시위 ▸ 경찰 발포로 사망자 발생
10.2	▸ 대구의전, 대구사범, 대구농대 및 고등학교 학생 시체 시위 ⇒ 대구경찰서 점거 ▸ 대구노평 ⇔ 대구역 시위로 10월인민항쟁 최대 사망자 발생 ▸ 미군정 대구에 계엄령 선포 ▸ 대구항쟁 ⇒ 경북으로 파급
10.3	▸ 대구노평 지도부 검거 ▸ 10월인민항쟁 참가자 검거 실시 ⇒ 경찰서 및 수창학교 수용 ▸ 대구도청 일반직 공무원 파업 돌입 ⇒ 대구부청 및 여타 관공서, 회사 파업 참가
10.22	▸ 대구 및 경북일대 선포된 계엄령 해제

<그림 2>, <그림 3> 1946.10.2. 대구역 광장 시위 발포 현장 사진

©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소

[시민의 품격 27화] 배고파 거리로 나온 시민들에게 총을 쏜 경찰, 꿈에
그러던 해방 이후 찾아온 지옥도. 잊혀진 기억, 쉬쉬하는 역사. 대구 10월
항쟁을 만나다.



[시민의 품격 28화] 빨갱이로 몰려 죽은 130만의 희생자! 해방
한반도에서 펼쳐진 지옥도는 대구 10월 항쟁에서 시작된다.

<그림 4>, <그림 5> 1946.10.2. 대구 시위 피살자 사진

©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소





< 항쟁 핵심 지역의 구분 >

- 1. 대구역 ~ 대구노평(태평로) -> 노동자의 광장(해방의 거리)
- 2. 대구부청 ~ 경북도청(관공서 길) -> '기아시위' 관공서 파업
- 3. 대구의전 ~ 대구사범 -> 학생·청년의 '시체시위'
- 4. 대구경찰서 -> 항쟁 폭발지(시위대 집결지)
- 5. 진골목과 달성공원 -> 부호들의 골목과 민중의 나눔 공간
- 6. 가창골과 달성광산, 경산코발트 -> 학살의 현장

주요 장소별 사건 정리

장소	사건 내용
대구역	10월 1일 경찰 발포, 노동자 사망 (10월 항쟁 촉발)
남조선총파업 대구시투쟁위원회 사무실	대구 총파업 지휘 본부
대구공회당	경찰과 시위대 대치, 기관총 배치
대구경찰서	10월 2일 시위대 점거, 경찰 4명 사망, 미군 장갑차 투입
대구 도청	10월 3일 공무원 파업 돌입, 민중 봉기 확산
철성원, 삼국상회	시위대와 경찰 무력 충돌 발생
건강당 약국 (현 사보이호텔 자리)	전국학련 경북연맹 본부, 우익 거점
미군 막사 (종로초등학교)	미군 병력 주둔지, 계엄령 선포 거점

경북 지역으로의 항쟁 확산

지역	주요 사건
영천	1만 명 경찰서 습격, 군수 살해, 경찰 40명 납치
의성	5천 명 경찰서 점령, 인민위원회 구성
군위	경찰서 점령, 군수·서장 납치
성주	3~4천 명 경찰서 포위, 경찰 간부 납치
경주, 포항, 예천, 봉화, 영주	항쟁 확산, 경찰서 습격

대구시 10월항쟁 관련 조례 제정

(2016년 7월26일)

- 1) 명칭을 '10월항쟁'으로 공식화
- 2) 문제는 법이 아닌 조례
- 3) 사례 :
 - 제주4.3사건 특별법(2000년, 2013년 제정)
 - 여수순천사건 특별법(2022년 1월 20일 공포)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6. 7.
발 의 자 : 김혜정 의원
신원섭 의원
김창은 의원
김재관 의원
차순자 의원
오철환 의원
(찬성의원 인)

1. 제정이유

대구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에 기여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의 지원기준을 명시함(안 제4조)
- 다. 희생자 유해발굴,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등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2023. 9. 23. 한국큐레이터협회 월레포럼

〈대구 10월 항쟁과 행동주의 예술〉

2023년 9월 23일 / 대구예술발전소 3층 세미나실

▶ 주제 1. 대구10월항쟁의 기억투쟁과 정명

- 발제 : 김상숙 (사회학자, 성공회대 연구교수)
- 토론 : 김병헌 (미학박사, 소촌아트팩토리 대표)

▶ 주제 2. 이상춘과 행동주의 예술의 사례들

- 발제 : 김기수 (미학박사, 이상춘현대미술학교, 독립큐레이터)
- 토론 : 이병희 (미술사박사, 스페이스298 디렉터)

▶ 종합토론

신용철 (부산민주공원 학예실장) 박재열 (부산민예총 시각예술위원장),
윤은숙 (한국민미협 울산지회장), 김화순 (미술가), 김채원 (사)전태일의 친구들 이사
권순신 (대구민예총 이사장), 최수환 (미술가), 박소현 (독립언론표출지대)

한국큐레이터협회 월레포럼 2309

‘대구 10월항쟁과 행동주의 예술’

일시: 2023.9.23 (토) 오후 1시~4시 30분
장소: 대구예술발전소 3층 세미나실
주최: 한국큐레이터협회, 로컬포스트

프로그램

13:00-13:10 행사안내 및 개회
김재환 (경남도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13:10-13:20 인사말

김준기 (한국큐레이터협회장)
김미연 (로컬포스트 대표)

13:20-15:20 발제 및 토론

발제 1: 김상숙 (사회학자, 성공회대 연구교수)
‘대구 10월항쟁의 기억투쟁과 정명’
토론 1: 김병헌 (미학 박사, 소촌아트팩토리 대표)

발제 2: 김기수 (미학 박사, 독립큐레이터)
‘이상춘과 행동주의 예술’
토론 2: 이병희 (미술사 박사, 스페이스298 디렉터)

15:30-16:30 종합토론

김태원 (역사학자)
신용철 (부산민주공원 학예실장)
박재열 (부산민예총 시각예술위원장)
윤은숙 (한국민미협 울산지회장)
김화순 (미술가)
김채원 ((사)전태일의 친구들 이사)
권순신 (대구민예총 이사장)
최수환 (미술가)
박소현 (독립언론표출지대)

한국큐레이터협회 월레포럼 2309

대구에서 열리는 한큐협 9월 월레포럼은 대구 10월항쟁과 행동주의 예술을 주제로 합니다. 20세기 후반 들어서 대구는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도시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6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전혀 다른 역사를 만납니다. 대구는 해방공간의 미군정 아래서 벌어진 10월항쟁과 1960년 2월 28일에 일어난 2.28 민주운동이라는 항쟁의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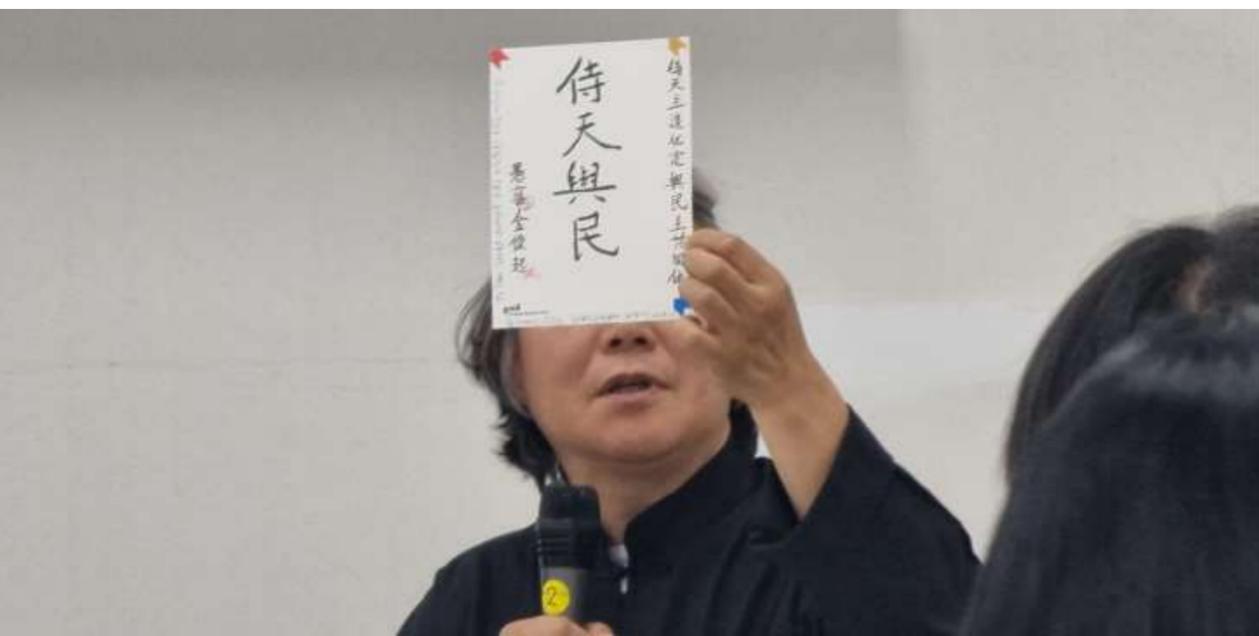
'제주4.3'과 '여순10.19'과 '광주5.18'이 예술적 실천과 맞물려 그 항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정명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듯, 대구10월 항쟁 또한 예술가들의 기억투쟁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연구자, 큐레이터, 예술가, 활동가 등 여러 주체들의 논의를 통하여 항쟁도시 대구의 새로운 서사를 만드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대구10월항쟁과 행동주의예술
 일시 : 2023년 9월 23일(토) 오후 1시~4시 30분
 장소 : 대구예술발전소 3층 세미나실
 주최 : 한국큐레이터협회, 로컬포스트

내용 및 일정

- 13:00 ~ 13:10
행사안내 및 개회 / 김재환(경남도립미술관 학예팀장)
- 13:10 ~ 13:20
인사말 -김준기(한국큐레이터협회장), 김미련(로컬포스트대표)
- 13:20 ~ 14:20
주제 1. 대구10월항쟁의 기억투쟁과 정명
 - 발제 :김상숙(사회학자, 성공회대 연구교수)
 - 토론 :김병헌(미학박사, 소촌아트팩토리 대표)
- 14:20 ~ 15:20
주제 2. 이상춘과 행동주의 예술의 사례들
 - 발제 :김기수(미학박사, 독립큐레이터)
 - 토론 :이병희(미술사박사, 스페이스298 디렉터)
- 15:30 ~ 16:30
종합토론 : 강태원(역사학자), 신용철(부산민주공원 학예실장), 박재열(부산민예총 시각예술위원장), 윤은숙(한국민미협 울산지회장), 김화순(한국민미협 광주지회), 김채원((사)전태일의 친구들 이사), 권순신(대구민예총 이사장), 최수환(미술가), 박소현(독립언론표출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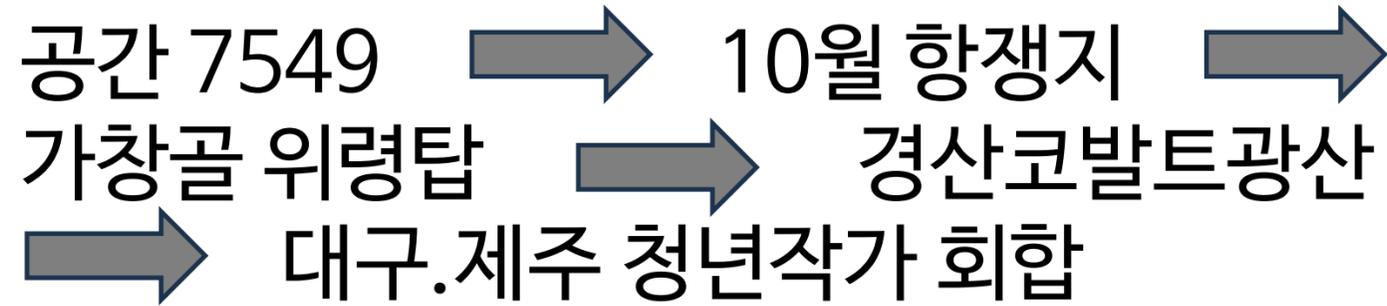


2024. 7. 16.

대구 10월 항쟁 순례

<대구 10월 항쟁 순례>

2024년 7월 16일



대구10월 항쟁 순례

대구&제주청년미술가

7월 16일 (화) 대구10월 항쟁지 안내 동선

12-12:40
공간7549

손호만_10월 항쟁의 개요와 항쟁지 순례

12:45-15
10월 항쟁지

15:30-16:30
가창골 위령탑

최영희_가창골 위령탑 순례

17-19
경산 코발트광산

최승호_경산코발트광산_평산동 수직1굴,수평2굴, 위령탑 순례

19:30-21:30

대구.제주 청년작가 뒷풀이

주관: 로컬포스트
4.3 미술제조직위원회

주최: 탐라미술인협의회

참가신청(~7월6일) localpost10@gmail.com

10월항쟁(9월총파업) 답사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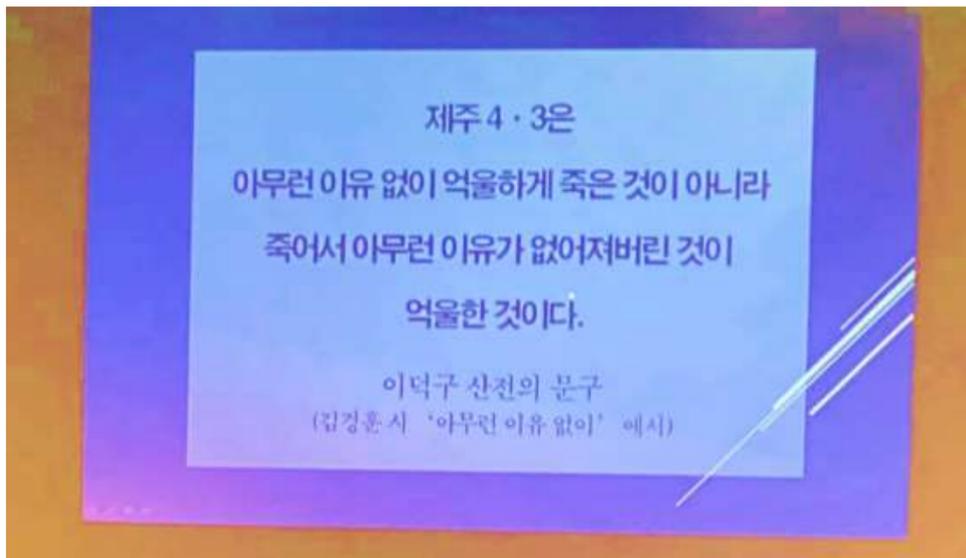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동영상과 사진으로 보는 10월항쟁	12:00~13:00	- 10월항쟁의 의미 - 답사 개요	4.9인혁재단 (간식)
이동	13:00~13:20	4.9인혁재단 ~ 대구역	걸어서~
대구역 대구공회당	13:20~14:00	- 노동자의 거리·민주광장 - 철도 및 전 산업 총파업 - 10월항쟁 발포 현장 (피의 항쟁 시작점)	대구역 광장에서 답사 시작
대구노평(시투) 삼국상회 대구민전(조공)	13:40~14:00	- 대구노평(집단 발포), 민전, 조공 등 민중운동 단체 집중	대구 음성 (북성로 길)
대구경찰서 건강당약국 (사보이호텔)	14:20~14:40	- 시체시위, 기아시위, 노동자시위 등 최종집결지 - 미군정과 경북도경찰청 장 무력 진압 지시 - 경찰서장 진압 거부 - 시위대 대구경찰서 점거 - 미군 장갑차 출동 시위	희움(일본군 위안부역사 관) 근처
대구우편국 대구전화국 경북도청(감영)	14:40~15:00	- 공공기관의 총파업 동참 (전 산업 파업 참여 유일) - 기아시위대 행진	근현대 역사박물관 (식산은행)
대구형무소 대구의전(병원) 대구사범		- 전남 등 전국 의병 순국 - 학생들의 선구적 역할 - 항쟁의 기폭제, 시체데모	설명으로 대체
이동	15:00~15:30		차량으로~
가창골 위령탑	15:30~16:20	- 대구시 조례 제정	10월항쟁 유족회 채영희회장
이동	16:20~17:00		차량으로~
경산코발트광산	17:00~19:00	- 경산코발트광산 수직1굴과 수평2굴, 위령탑 순례	경산유족회 최승호 이사



*49인혁재단_공간 7549

손호만

전 전교조대구지부장(역사교사)
전 대구노동교육협회 공동대표



동대구역과
대구도서관에



독재자 박정희 동상
건립을 반대한다!!





• 대구역



• 대구공회당

-
- 대구노평(시투)
 - 대구 음성(북성로 길)



• 대구형무소(대구의전(병원))





***가창골 위령탑**

채영희 10월항쟁 유족회회장



***경산 코발트광산**

최승호 경산유족회 이사





경산코발트광산





*경산 코발트광산

최승호 경산유족회 이사

2020. 11. 22.

대구 10월 항쟁: 기억x예술 = 화해의 난장

소극장 함세상

[시월 바람 바람 바람_대구 10월 항쟁_기억x예술=화해의 난장_002.mp4 - Google Drive](#)

기획의도

1982년 대구에서 시작되어 200만 명이 참가한 대중운동이지만 지금은 지역차별된 역사인 '10월 항쟁'을 이 시대 예술가들이 수렴한 예술로 해석하여 역사의 화해와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제주의 4.3항쟁, 여순사건 등은 현재 복권되거나 심도 높은 조사대상에 있으나 대구 10월 항쟁은 기초적인 기록 작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는 2,28만주 운동, 국제보상운동을 맞아 대구시민주간으로 지정하고, 혼란기에 시민들이 돌봄처럼 일어난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 생각하는 현재 대구의 상황성에 맞게 10월 항쟁 역시 재조명하는 작업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다시 짚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념적 낙인으로 인해 한평생 고통스런 삶을 살아온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화해와 치유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구 예술가들이 말하는 제마디의 목소리와 바람이 기억과 화해의 큰 바람이 되어 과거의 문제를 극복하고 또 다른 미래를 여는 큰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단체와 참여자

- | | | |
|----------------------------|--|------------------------------|
| 도도연극과 교육연구소
밴드극락 | 산정자, 이순애, 장외숙, 성숙희, 황금수
예제창노래·기타, 문경민(가야금), 재갈은(해장구),
최지오(바순), 박원준(물방) | 밴드 극락 |
| 보누스아트컴퍼니
솔피아트합창단 | 이해진, 이효정, 이은경
이보나(지휘자), 송지은(반주자), 이상성, 조성화, 김효진,
이영희, 서효정, 김재영, 최국진 | 솔피아트 합창단(솔로 이효정) |
| 열린사는 연극쟁이 동동
극단거인 | 백운선, 김성희, 장종호 | 작사, 작곡 : 이대우
출 : 박정희, 황금수 |
| 카바레보안구회 | 김주권 | 노래 : 이종일, 황성재(기타) |
| 시월문학회 | 송광근, 이장진 | 그림 : 최수환, 김종표, 정하수 |
| 포럼포스트 | 김이연(태너레이션) | 풍물굿채 대구 : 이호근 |
| 풍운친구들 | 장구현, 직송원, 박근모 | 극단 함세상(세상 : 악양아) |
| 작가회의 대구경북지회 | | |
| 출연출 이연소
기획 채민나, 강병희 | 홍보 이호근
진행 박정희, 문혜선 | 무대 최수환
음향 조영시스템 장구현 |
| 무대전행 장지연
풍향조감독 박승민 | 조명감독 박근모 | 공연영상편집 박지은 |
| 영상촬영 및 메이킹 포럼포스트 | 포럼아트랩 조은별 | 사진기록 이기영 |

대구 10월 항쟁: 기억 x 예술 = 화해의 난장

시월, 바람,바람, 바람!

천수파 아들이 아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같이 살아다
깃발을 달아라오 우리 깃발을 그 같이 전사들 땀에 찬 깃발
아름답게 살아가는 통부 정정이 가슴 속 울어 온다
통부야 잘 가기가 천천히 걸을 북수의 맑은 미 흐를음한다

이런 것들이여 말하는 통부
정정의 가슴 속 울어 온다
통부야 잘 가기가 천천히 걸을
북수의 맑은 미 흐를음한다

2020. 11. 22 일 16:00
소극장 함세상 (대구 남구 명덕로 98-2)

주최주관 (사)대구인예총 후원 Colorful DAEGU 대구문화재단

입장료 | 감동후불제 문의 | 010.3823.7876
*본 사업은 2020대구문화재단 기금기회지원사업입니다.

천수파 아들이 아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같이 살아다
깃발을 달아라오 우리 깃발을 그 같이 전사들 땀에 찬 깃발
아름답게 살아가는 통부 정정이 가슴 속 울어 온다
통부야 잘 가기가 천천히 걸을 북수의 맑은 미 흐를음한다

프로그램

프롤로그

합창 Intro, 산유화
인인항쟁가

작사 김소월 / 작곡 김순남
작사 임 화 / 작곡 김순남
솔피아트 합창단(솔로 이효정)

예술꽃으로 피어난 대구 시월

노래·영상 끝나지 않은 시월

작곡노래 이종일 (초청)
영상 연극 '밭길'

합창 시월의 아미에게

작사·작곡 이대우
솔피아트 합창단(솔로 이해진)

시낭송·그림 장들

시낭송 이정연 / 그림 정하수

독창·춤 시월의 노래와 진혼무

작사·작곡 좋은 친구들
노래 보누스아트컴퍼니 이은영
독무 형남수

대구 10월 항쟁: 기억 x 예술 = 화해의 난장

시월, 바람,바람, 바람!

시월은 시월로 잇고 이어

- | | | |
|--------|--------|-----------------------|
| 노래(밴드) | 독, 부모 | 밴드 극락 |
| 시낭송·그림 | 모월모일모시 | 시낭송 송광근 / 그림 최수환, 김종표 |
| 2인극 | 장사의 진의 | 김성희, 장종호 |
| 노래와 기타 | 시월 | 황성재 |

동시대 예술의 눈과 발

- | | | |
|---------|------------------|--------------|
| 1인극 | 새들에게 아무것도 안 알려줘어 | 백운선 |
| 1인 독무 | 꽃잎이 떨어질 무렵 | 거리의 춤꾼 박정희 |
| 노래·카바레트 | 성주 민중의 노래 | 김주권 |
| 애니메이션 | 불의 시작 | 김미련 |
| 연극 | 메가폰 슈프레하볼-태일의 나라 | 도도 연극과 교육연구소 |

에필로그

- | | | |
|----|-------|-------------|
| 합창 | 인인항쟁가 | 모든 출연자와 스태프 |
|----|-------|-------------|

2024. 9. 30.

2024 10월항쟁 전야예술제

〈광장공포증 AGORAPHOBIA〉

2024 10월항쟁 전야예술제 ‘Agoraphobia=Your Twisted Hero’

광장공포증=박정희, 너희들의 일그러진 망령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17시

동대구역 광장

- 주최: 10월항쟁 78주년 준비위원회,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10월항쟁진실규명-명예회복을 위한 연대회의(준),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대구문화예술현장실무자정책네트워크 FLAT_PLACE, 니나노프로젝트예술가협동조합, 로컬포스트,
- 주관: 2024.10월항쟁 전야예술제 예술가 네트워크
- 후원: 인디053, 아트지 협동조합

1946년 10월 대구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한 강렬한 대중운동이지만 철저하게 잊혀지고 있는 ‘10월항쟁’ ‘10월항쟁’ 78주기를 맞이하여 목포로, 제주로, 광주로, 부산으로, 울산으로, 창녕으로, 서울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항쟁의 기억을 다시 끌어안고 전국의 예술가들이 불꽃의 진원지 대구로 집결합니다.

2024년 어느 날, 대구의 관문 동대구역 광장은 ‘박정희 광장’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와 민주시민들이 열어젖힌 ‘광장’은 참으로 어색한 짝입니다. ‘박정희 광장’이라는 명명과 일련의 기념사업은 뒤로 가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감수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미완의 민주주의는 의회가 아니라 거리와 광장에서 시민들이 피워 올린 거센 불길 속에서 담금질 되었습니다. 대구의 민주주의는 가장 역동적으로 굽이쳐 왔으나 ‘기억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끝에 보수의 도시로 낙인찍혔습니다.

예술가들은 ‘10월 항쟁 전야예술제’를 통해 잊혀져가고 있는 78년 간을 관통하는 거리와 광장의 역사, 민중들의 서사를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내고 세상으로 공명시키기 위해 2024년 9월 30일, 다시 광장에서 만납니다.

□ 1부 대구로, 광장에서 to the Daegu, on the Agora / 1시간

* 아이스브레이킹 & 토크

- 현대의 인사: 대구의 예술인(대표: 최수환)
- 그룹별 인사: 광주, 제주, 서울 등 지역 혹은 그룹별 인사 5회 내외
- 10월의 인사: 10월 유족회(채영희 회장)
- 박정희를 대신하여: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임성중 본부장)

*1부 마무리 공연: 퓨전밴드 그리Go & 춤꾼 박정희 & 시인 이정연의 ‘to the Daegu, on the Agora’

□ 2부 광장을 두드리다 - knock on the Agora / 2시간

* 대형 걸개그림 즉흥 드로잉

- 180cm*900cm의 대형 걸개 3개를 참여자 전원이 참여하여 드로잉
- 주제1: 10월항쟁, 주제2: 박정희
- 스케치북 100개에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기표현
- 오픈마이크를 통해 공연과 발언 이어가기

*2부 마무리공연: 도도 연극과 교육연구소의 ‘메가폰 슈프레히콜’

□ 3부 광장의 목소리들 - voice of the Agora / 1시간

* 오픈마이크

-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 작성한 이미지를 토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공연을 진행

광장공포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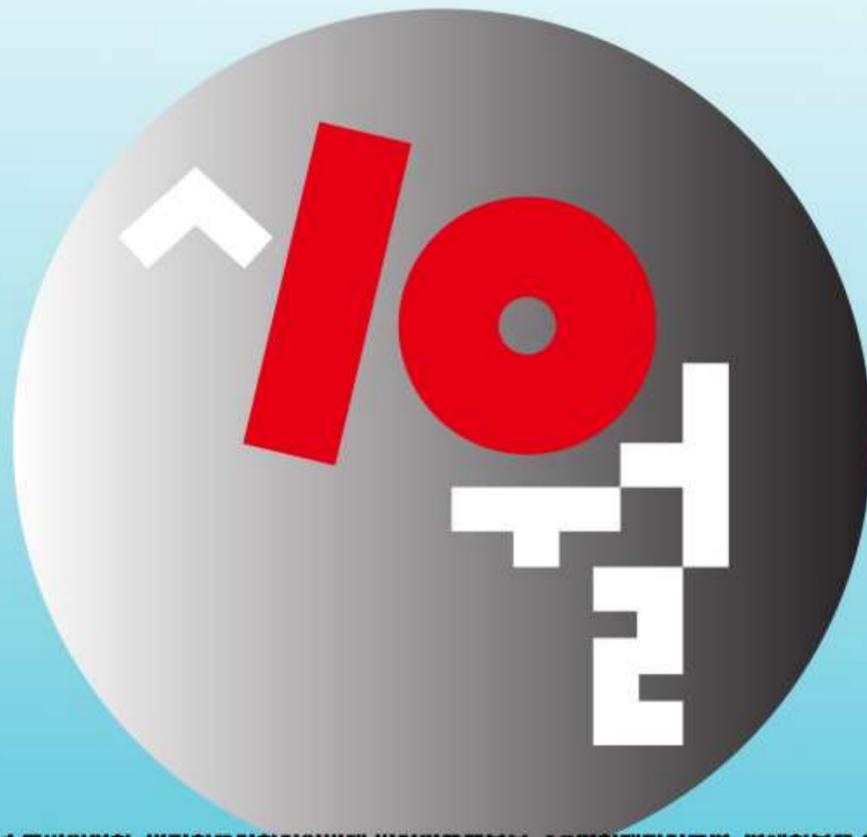
AGORAPHOBIA

너희들의 일그러진 망령

YOUR TWISTED HERO

2024. 9. 30. 월 17시

동대구역 광장



주최: 10월항쟁 78주년 준비위원회,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10월항쟁진실규명-명예회복을 위한 연대회의(준)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대구문화예술현장실무자정책네트워크 FLAT_PLACE

니나노프로젝트예술가협동조합, 로컬포스트

주관: 2024.10월항쟁 전야예술제 예술가 네트워크

후원: 인디053, 아트지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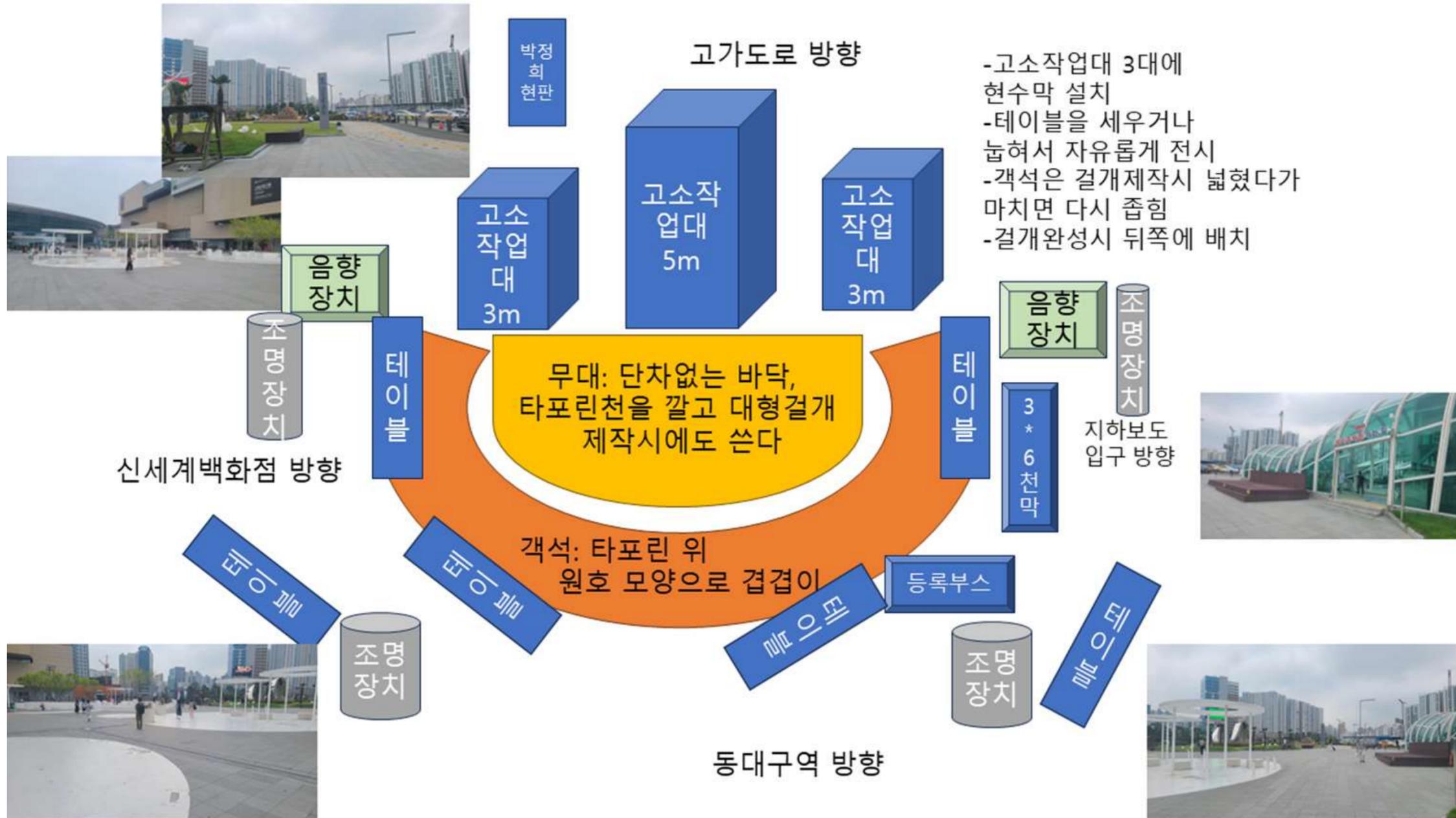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029577122 한상훈

참여인칭
프로그램
자세정보
----->



참가지 및 관련 행사 소개

2024 10월항쟁 전야예술제 '광장공포증-박정희, 너희들의 일그러진 영웅' 행사장 배치도



참가지 및 행사 소개

- **광주 전남**
홍성담, 김준기, 김화순, 노주일, 김우성, 박성완, 전해옥, 전상보, 박성우, 고가연(현 고흥군 학예연구사)
- **제주**
박경훈 작가, 양동규사무처장, 김승민 작가, 진정아 민예총활동가, 박정미 민예총 행정팀장
- **서울**
이선일, 이현정(母子)
- **부산 경남**
신용철, 방정아, 백보림
- **대구 경북 경남**
 - 대구 10월 문학회(4명): 정대호, 신기훈, 이철산, 이정연
 - 도도 연극과 교육연구소(5명): 이현순, 도도 4명
 - 대구 리카(이상춘현대미술학교)rica(5명): 김기수, 최지혜, 김지민, 간질간질간질(김태욱, 백승현, 박성호)
 - 대구 로컬포스트(2명): 김미련, 정진석
 - 대구 4610(10월항쟁을 기억하는 시민모임): 우창수의 노래나무심기: 우창수, 김은희
 - 대구 니나노예술가 협동조합(3명): 김병호, 손영복, 김건예
 - 대구 디자인그룹(2명): 정재완, 구민호
 - 대구 문화예술계(10인 내외): 최수환, 한상훈, 이동우, 석경관, 박정희, 팔로, 조선남
 -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등

2024 10월항쟁 전야예술제

‘광장공포증-박정희,너희들의 일그러진 영웅’ 사회자 시나리오

- 사회자: 최수환

17:00~17:05(5)	여는 인사 및 안내
17:20~17:35(15)	10월의 인사
17:35~17:45(10)	박정희를 대신하여
17:45~18:00(15)	1부 마감공연
18:00~18:10(10)	걸개그림 작업 및 <u>오픈마이크</u> 안내
18:10~19:45(95)	걸개그림 작업 <u>오픈마이크</u> 스케치북 <u>그림그리기</u> 자유 전시
19:45~20:00(15)	2부 마감공연‘메가폰 <u>슈프레히콜</u> ’
20:00~20:10(10)	3부 안내 및 <u>장내정리</u>
20:10~21:00(50)	<u>오픈마이크</u>
21:00~21:05(5)	닫는 인사, 안내사항

광장

Agoraphobia

- #광장공포증 #단힌 광장
- #열린 광장 #광장소유권
- #독재자를 위한 광장은 없다
- #광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 #광장을 점령하다
- #나의 광장, 우리의 광장
- #광장에서 놀자
- #광장의크기=상상력의크기
- #만남의 광장 #소통의 광장
- #민주주의의 심장
- #도시의 중심 #공동체의 상징

시월

1946년, 대구

Taiku
大丘
Taegu
大邱
Daegu

- #해방정국 #미군정 #계엄령
- #건국준비경북치안유지회
- #조선노동조합대구지방평의회
- #강제공출 #콜레라 #친일경찰
- #왜해방되었는가 #9월총파업
- #나아가자조선 #시체데모
- #노동자황말용 #19구경철서
- #인민항쟁의피어린기록
- #m4탱크 #1인당하루양곡3홉
- #골로간다

박정희

너희들의 일그러진 망령
망령에 대한 기억

Your twist specter

- #일그러진영웅너머
- #나무덤에침을뿜으며
- #파묘도문무상화 #효수대여목매달다
- #박정희도원하지않는우상화
- #독재정권 #지역감정중립 #공포정치
- #부정부패 #사법살인 #반인반신
- #정경유학 #새나라자동차사건
- #음향폭제 #워커할사건
- #박정희사건 #사기권일수
- #국가예산0.6%윤락업소특별
- #한일반민족자등용 #증권파동
- #부정선거 #참분폭리사건 #간첩조직
- #사유재산강탈 #최태만국정봉안
- #직선제부정 #간첩조치
- #인혁당사건 #영구집권야욕
- #토테미즘 #반인반신 #거짓소의형상
- #동서결혼조정 #무관참사
- #독재자의동상은반드시무서워진다



박정희
 너희들의 일그러진 망령
 망령에 대한 기억
 Your twist specter

[Faded Korean text follows]





• 광주, 전남 민미협

홍성담, 김우성, 박성완, 전해옥, 전상보, 박성우, 고가연(현 고흥군 학예연구사)





#해방정국 #미군정 #계엄령
#건국준비경북치안유지회
#조선노동조합대구지방평의회
#강제공출 #콜레라 #친일경찰
#왜해방되었는가 #9월총파업
#아가자조선 #시체데모
#동자황말용 #19구경찰서
#항쟁의피어린기록
#크 #1인당하루양곡3홉
간다



채영희
10월항쟁유족회장



제주 민예총, 탐미협

박경훈 작가, 양동규사무처장, 김승민 작가,
진정아 민예총활동가, 박정미 민예총 행정팀장



최수환 전 대구민예총이사장

김채원 사)전태일의 친구들 이사



김기수 DICA 대표, 이상춘현대미술학교장, 미학박사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



이곳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itizens participating in the event held here are taking commemorative photos.)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문화 공연과 전시가 진행되었다. (On this day, various cultural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were held.)

참가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즐기고 있다. (Participants are enjoying the event with happy hearts.)

이 행사는 지역 사회의 단결을 강화하고 문화 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This event was organized to strengthen community solidarity and promote cultural life.)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We plan to hold various cultural events in the futur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김병호(대구)

바닥걸개
진행,
참가자유도





도도 연극과 교육연구소: 이현순, 도도 5명 <우린 알고 있어> 메가폰 슈퍼히클



광장
Gwangjang
Market

시월
1946년, 대구
Siwol
1946, Daegu

박정희
너희들의 실그린 장면
당첨에 대한 기억
Your twat spotter



동대구역

Dongdaegu Station 東大邱驛





노주일 <탕탕탕>



로컬포스트 (정진석) <이 땅이 뉘 땅인가?>



간질간질간질 (김태욱, 박성호, 백승현)

<수많은 분기점>

간질간질간질이 그려본 대안미래가 동대구역에 있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에 저항하는 대구의 모습이 그곳에 펼쳐졌다. 다른 미래를 그려본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약간의 불편함일 수도, 또는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일 수도 있는 그 감정은 지금과는 다른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광장에 공유하고 싶었다. 다른 이가 그린 세계를 한번 엿보는 것. 그 행위를 동대구역 광장을 거니는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었다. 또한 우리는 질문도 던졌다. 이 미래가 아니면 어떤 미래가 올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는 어떠한가요? 지금에 만족하나요? 수많은 질문이 광장에서 떠올랐다. 밝고 화려한 모습을 한 10개의 포스터들은 그 이면에 감출 수 없는 불길함과 약간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 상황에 대한 의아함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품고 있었다.





광장
Agoraphobia

#광장공포증 #닫힌 광장
#열린 광장 #광장소유권
#독자자를 위한 광장은 없다
#광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광장을 침범하다
#나의 광장 #우리의 광장
#광장 #광장
#광장 #상상력의 크기
#광장 #통의 광장
#광장 #공동체의 상징

시월
1946년, 대구

Taegu
大丘
Taegu
大邱
Daeg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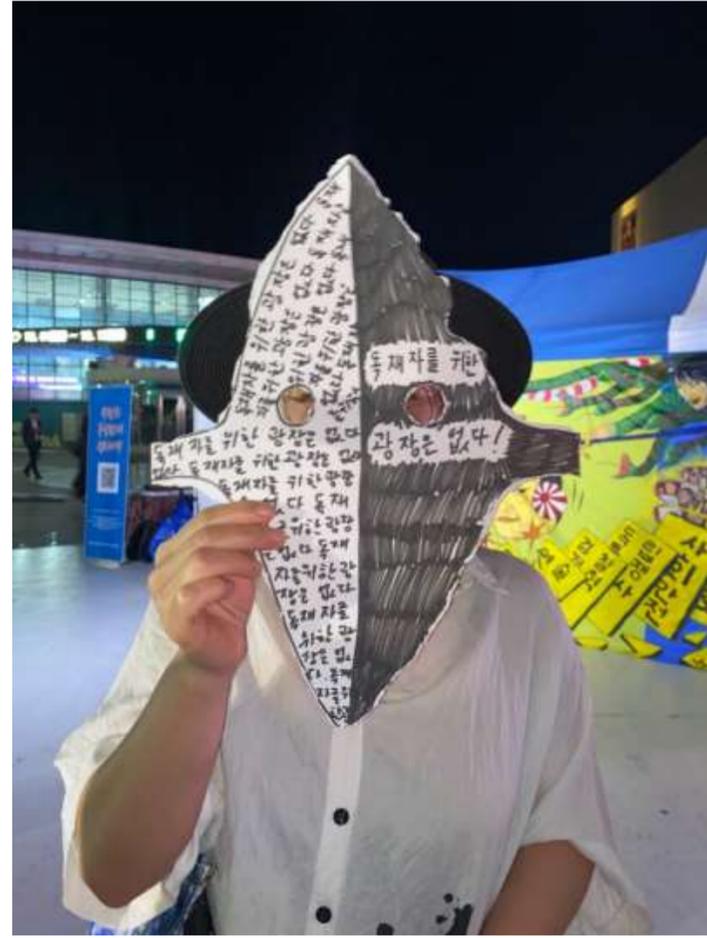
#해방정국 #마군정 #계엄령
#건국준비경북치안유지회
#조선노동조합대구지방협의회
#감재공출 #몰래라 #신월경찰
#왜해방되었는가 #9월총파업
#나아가자조선 #시계대모
#노동자항말음 #1946경리서
#인민원 #피어린
#m4명 #인정하 #3층

박정희

너희들의 일그러진 망령
망령에 대한 기억

...et specter

(사)전태일의 친구들
이사장 송필경



백보림 작가 (부산)



울산 민미협 (배성희, 윤은숙, 이루)

<석열이와 건희의 도미노게임_걸개>

300cm X 200cm, 광목위에 아크릴



김미련(대구)

< 간부 월드 >

42cm x 59.4cm, 디지털 페인팅, 2023



노주일, 박성완,
김순흥교수(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

<탕탕탕 퍼포먼스>





숨 -의미심장(意味心腸)“

동대구역 광장에서 두 개의 심장이 마주 섰다. 하나는 채영희 유족회장님이, 다른 하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들었고, 각각의 심장으로부터 뺏어 나온 붉은 실들이 엉켜있었다. 엉켜있는 실을 함께 푸는 것으로 시작된 이 작업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상처를 현재와 연결하고 풀어내는 과정이었다. 실을 푸는 행위는 침묵 속에 감춰진 역사를 푸는 일이기도 했다. 유족회장님의 손길에서 시작된 실풀기가 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손을 거쳐갔고, 마침내 풀어진 실가닥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에 쥐었다. 결국 우리는 두 심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실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원을 이루었다. 마치 커다란 거미줄처럼, 또는 우주의 별자리처럼 서로를 향해 뺏어 나간 실들은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작업은 단절된 시간을 잇고, 우리 모두의 상처를 함께 마주하며, 역사의 기억을 현재화하는 의례가 되었다.



이현정(서울) <‘숨;의미심장(意味心腸)’프로젝트_붉은 실타래, 심장 퍼포먼스>

모두의 상처를 함께 마주하며, 역사의 기억을 현재화하는 의례

2025. 9. 30.

2025 10월항쟁 진야예술제

〈향후 2025, 2026년 80주기 10월 항쟁 예술제의 계획과 모색〉

- 2025년 대구시민단체와 연대, 텀블벅 후원 모집 10월항쟁 진야예술제 계획
- 2026년 80주기 10월 항쟁 예술제의 계획
 - 1) 80주기 10월 항쟁 예술제의 개념, 주제, 작가선별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구조
 - 2) 예산: 국공립 지자체 공모 응모, 텀블후원 모집
 - 3) 전시공간: 부산민주공원, 울산, 제주, 광주 국공립 전시공간 연대모색
 - ① 광주 은암미술관 (2025.2026년. 9월 확정)
 - ② 대구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매년 9월 중순 1주일 공모)
 - ③ 대구 대안공간 네트워크((이상춘현대미술공간) 3월 오픈(30평), 무영당 백화점?)
 - 4) 10월 항쟁지 투어: 2025. 3. 22.-23.(토,일) 손호만, 최승호 안내, 해설
 - 5) 10월항쟁 학술, 토크, 콘서트?

Q & A

감사합니다